

『창세기 17회: 창세기 17:4-27』

1.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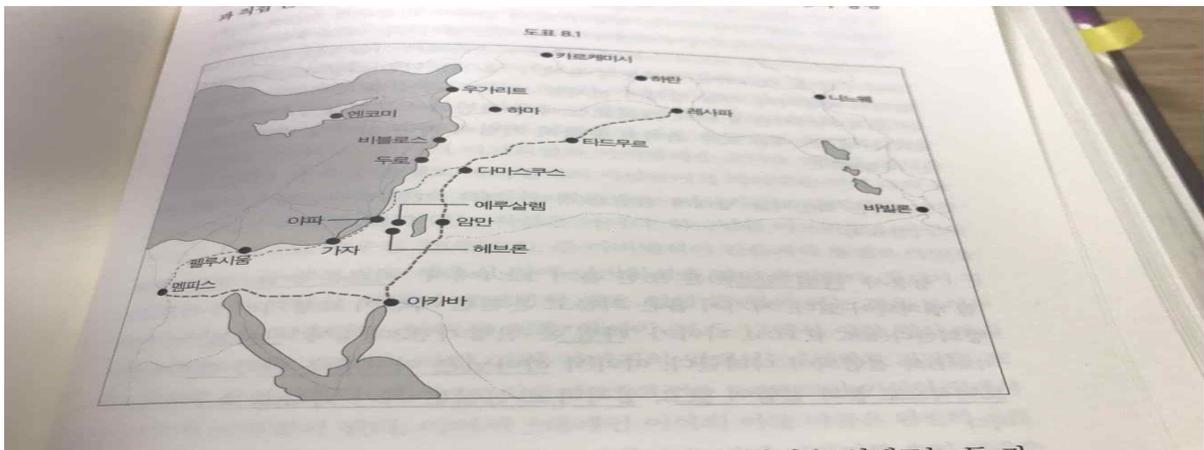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¹⁾

- 약속을 주심: 아브람의 부르심(창세기 12장)
- 언약을 맺으심: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창세기 15장)
- 언약을 보증함: 할례의 표징(창세기 17장)
- 아브라함의 순종과 약속들을 맹세로 보증하심(창세기 22장)

오늘 저희가 살필 17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의 앞에서 행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월튼은 구약성경의 모든 용례를 찾아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앞에서 행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나 대사**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17:1에서 아브람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행자, 대사, 사자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브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려면, 고대 근동 지도에서 여행 노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1) Peter J. Gentry, Stephen J.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Wheaton: Crossway, 2012), 김귀탁 역, 『언약과 하나님 나라』(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358.

가나안은 고대 초강대국들을 양편에 두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이집트,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초강대국 간의 상업과 교역을 위해 주어진 유일한 통로는 가나안을 통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가나안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²⁾

가나안은 고대 사회에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중심에 두실 생각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마 5:15)

우리는 돈을 쫓아다니고, 학벌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돈도 주시고, 좋은 학위도 주시고, 사람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청소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성경을 상세하게 배우는 경험은 여러분들을 세상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2.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4절-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5b)는 완료형으로서 미래의 약속을 이미 실현된 것으로 표현합니다.³⁾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은 ‘이미 실현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약속을 ‘아직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실현된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은 아브람의 정체성을 바꾸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후 이름을 바꾸시지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 전에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민망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2) Byron L. Wheaton, “Abraham, Land, and Stewardship: Reading the Abraham Narratives for Their Contribution to Israel’s Land Ethic”(박사학위 논문,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01).

3)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27-50: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5), 권대영 역, 『창세기 2』(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253.

불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이 당장 소유한 것에 있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가 받은 약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그때에 가서야 온전히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태도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정체성을 바꾼 이후 이삭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약속은 6-8절에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심히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후손이 ‘왕’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번성’은 야곱의 때(48:4)에 이루어지고, 애굽에 들어가서도 이어집니다.⁴⁾ 후손이 왕이 되는 복은 창세기에서는 이스마엘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후에 다윗 왕조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이 심히 번성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우리 삶의 형통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후손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후손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영적 생명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의미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 심히 번성하게 되는 것, 왕들이 나오는 것,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완전함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언약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헌신으로 유지됩니다.⁵⁾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헌신에 기대어 부차적으로 헌신할 뿐입니다.

4) Kenneth Mathews, 『창세기 2』, 254.

5)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 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523.

땅에 대한 약속도 조금 구체화됩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의 명칭이 하나님에 의해 언급된 것은 이 구절이 처음입니다.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목적지만 알고 가는 길을 모르는 여행과 비슷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야 합니다.

2. 할례의 언약(17:9-14)

9절-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언약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야 함을 증언합니다. 할례가 참된 의미를 지니려면, 반드시 믿음과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육체에 할례를 행한 이유는 아브라함 자손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할례의 동기였습니다.⁷⁾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할례는 다른 사람들과의 보이는 구별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할례 의식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할례 행위는 할례 받은 자를 위한 표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여호와의 언약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에서 구원받았는지, 누가 그들을 구원했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⁸⁾

13절에서 할례는 가족을 넘어서 확대됩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하는 것을 넘어서, 노예에게 할례를 하는 것은 언약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회의 핵심 계급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들에게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향합니다. 장자가 노예보다 낮지 않습니다.⁹⁾ 14절에서 할례의 수행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추방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동체의 시각에서 이런 제명은 상징적으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¹⁰⁾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라는 감각을 가져다줍니다. 이런 감각에 성실하게 반

6)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Texas: Word Books, 1987), 윤상문, 황수철 역, 『창세기 16-50』(서울: 솔로몬, 2006), 95.

7)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창동 역, 『창조와 축복』(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493.

8)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530.

9)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531.

10) Kenneth Mathews, 『창세기 2』, 257.

응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영적인 컨디션이 떨어져 계시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을 가능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3.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17:15-18)

하나님께서서는 사래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주셨습니다. 의미는 둘 다 공주이니, 의미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래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름을 바꾸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지금도 “엎드려 웃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엎드려 웃” 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불가능한 약속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갈망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숨겨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쫓았을 때는 사래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이루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문제가 완전히 불가능해져서 아브라함이 무력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야만, 아브라함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아브라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무것이나 구하란 뜻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구하십시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설령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고, 내가 기대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면, 결국은 이루어 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린도후서 1장 20절) 왜 말씀에 아멘하면 이루어질까요?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¹¹⁾

4. 이삭의 약속(17:19-22)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임신할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후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 차례 등장하셨지만, 하늘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지금까지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올라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다른 존재시구나...”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불가능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랑 다르단다.”라고 말씀한 셈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나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달라서 불가능이 없고, 내게 어렵다고 그분에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¹²⁾

5. 아브라함 가문의 할례(17:23-27)

23-27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서술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날” 아브라함은 정확히 할례를 시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지체 없는 행동은 그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 믿었음을 의미합니다.¹³⁾

17장은 다음처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향한 신뢰와 정결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들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언약에 구별되고 그 조항들을 신실하게 순종해야 할 언약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¹⁴⁾■

11) 정우준, 『창세기 I』(서울: 부크크, 2019), 187.

12) 정우준, 『창세기 I』, 192.

13) Kenneth Mathews, 『창세기 2』, 261.

14)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498.